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

2001년 6월부터 십시일반·나눔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시작된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이 어느덧 2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기업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사랑 캠페인 참여기업〉

참여순번	참여기업	CEO
1	터보테크	장홍순
2	로커스	김형순
3	핸디소프트	안영경
4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5	다산알앤디	오세우
6	메디다스	김진태
7	오피콤	한운영
8	EZ Digital	이영남
9	세나소프트	신향숙
10	기프코닷컴	김영진
11	카티정보	원석연
12	소프트비전	이정수
13	퓨처테크	이상원
14	Eflux	구본극
15	인디시스템	김창곤
16	퍼스택인터내셔널	선상규
17	서두인칩	유영욱
18	이셀피아	윤 용
19	디자인스툼	손정숙
20	메디오피아	장일홍
21	인터그런트 테크놀로지즈	고범규
22	알앤디	김주성
23	씨큐어테크	김승수
24	모디아소프트	김도현
25	엔젤로또	김도현
26	닉스테크	박동훈
27	모디아테크놀로지	김도한
28	이폴리머	홍태희
29	두리정보통신	김현섭
30	한국인트라넷	임기준
31	엘리텍정보통신	김옥중
32	이모션	정주형
33	혁신정보시스템	전세원
34	새턴정보통신	김영수
35	디지털웨이브	조민제
36	에스앤에이취정보	윤우인

• 알림 •

협회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장모금운동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심있는 벤처기업은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회소식

전북지역 협회

벤처등록 및 사업수립 전략 설명회

정읍소상공인지원센터는 2일 정읍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정읍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벤처 등록과 사업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력 제고 및 벤처 등록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각 업체가 핵심역량 개발로 실질적인 벤처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벤처창업의 실제와 법률관계, 세무일반 및 기업회계, 벤처인증과 지원시책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가 문의는 정읍소상공인지원센터(063-533-1781)로 하면 된다.

도내 최초 '클러스터' 오픈

갈수록 기업경영의 선택과 집중의 배려가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팔복동에 '첨단벤처단지'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곳 벤처단지는 사업영역이 비슷한 전국의 기업들을 선별 입주시켜 집적화를 이룬 것이 특징. 기능성 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첨단벤처단지는 이른바 도내 최초의 자동차·금형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도내의 경우 현재 뚜렷한 대표산업이 부재한 상태여서 처음 출범한 전주첨단벤처단지에 대한 기대는 남다르다.

4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11월 착공, 7828평 부지에 9개 동(2동은 현재 공사중) 2965평의 건물이 조성돼 11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전주첨단벤처단지는 연차적으로 투자액을 늘려 도내 최대의 테크노밸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벤처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금형과 자동차 부품부분에 집중돼 있다. 더욱이 단지내의 수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장비는 이들 기업들의 성장속도를 자극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대 기계공학부 양균의 교수는 "기존의 공단은 기업들을 무조건 한곳에 모아놓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사업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전주첨단벤처단지의 경우 자동차·금형 분야의 업체들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관련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지역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